한국의 메가트렌드

강 홍 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ongyol@kisdi.re.kr
02-570-4290, 011-398-4451

“ 미래 ”

분야별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의 시사점

“미래”

인간은 과거로부터 오늘로 왔고, 미래를 궁금해 함

- 인간의 욕망은 의지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운명과 관련
- 인간의 욕망과 운명은 항시 갈등의 소지가 존재함

미래는 호기심을 넘어 삶을 위한 예측의 대상임

- 이에 인간은 점복이나 예언 같은 문화를 형성하기도 함
- 미래에 대한 전망은 논리적 타당성과 인식적인 합의를 가져야 함
-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예측의 기간과 시야의 문제를 내포함
- 미래에 대한 전망은 수정하려는 노력으로서 미래에 대한 설계와 전략을 수반함

미래에 대한 시각

미래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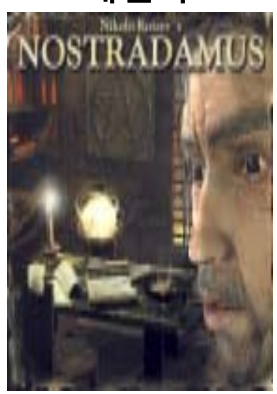
국가지도자

IT전문가

영화감독

미래소설가

예언가



무당

점술가

-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임
- 그러므로 꿈꾸는 자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으며, 소망이 있음

Peter Drucker

The best way to predict your future is to create it.

트렌드 : “중장기적 관점”

- **Fixed Variables의 유동화** (단절(discontinuity) 내포)

  운용(작동)원리, 구조의 이해보다는 변화(Dynamics) 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증대

  (상전이를 통한) Paradigm Shifts를 내포

  변화에 대한 역작용(반동)의 발생 (예, Human Touch의 요구)

  적응의 사회 이슈화

- **분야(Domain)별 독립성(Autonomy)의 휘발**

  전체적(holistic),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 증대

  전체시스템 내의 상관관계의 확장으로 분야 사이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형태의 순환구조(선순환 또는 악순환)의 등장

트렌드 : “중장기적 관점”

- **속도(변화정도)의 이슈화** (제도화의 정도, Adoptability & Stability 등의 중요성 증대)
  - 변화의 적정속도와 제도적 안정성 논의의 중요성
  - “적응 지체”의 분야별, 영역별 격차 발생 (Channel Conflicts 유발)
- **Hyper-Reality의 확산과 Channel의 해체** (기존 Channel의 변환)
  - Ways of Communications (Transactions, Decision-Making, Conflicts 등)의 변화
  - Process의 변화 (분야별 경계(Boundaries)의 해체, 융합 진전)
  - Channel Conflicts (Process 전환 및 Substitution의 일상화)
  - 기존의 Channel에 근거한 규범이나 권위의 와해

“미래”??? 학문 ??

- ‘미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더 먼 앞날을 의미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수준보다 큰 불확정성(indeterminac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등으로 둘러싸여 있음

  불확정성, 불확실성, 복잡성은 문제를 관찰하는 시각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됨 (과학적 접근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선형성(linearity)이 급속하게 감소함)

- 따라서, 과학적 신뢰나 전문가적 혜안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미래연구는 '합의를 구하는 과정'

- 미래연구는 '학문'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논리적 엄밀성(logical consistency)에 근거하여 보편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지는 못함

  '학문'과 달리 항상 다른 사람이나 먼 미래에 대한 추정과 내용을 활용하고 일상에 이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를 안게 됨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은 "그렇다"라는 비교적 단정적인 내용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것이다"라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

⇨ 설득가능성(ability to persuade)의 중요성

설득 가능성의 도출로서 미래연구

- 미래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특정한 형태의 합의를 모으는 (consensus building) 과정이 구체적으로 접합,수반
- 미래연구의 결과를 전달함에 조직이나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가진 공통된 인식이나 문화적 코드를 통하여 전달

  모든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공동체, 사회, 국가 등은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의 문화적 코드, 안정적 인식 등을 이끌어내는 문화(culture)나 합의(consensus)가 존재

- 미래연구 과정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 공인할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도입 (예, 컨설팅 회사)

설득 가능성의 도출로서 미래연구

- 미래연구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 가능한 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논리과정을 많이 도입
- 미래에 관한 많은 내용이 현실적인 환경에서 관찰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내용을 서사나 언어의 형태로 형상화 (Visualizing)
- 미래연구의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적절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언어의 기본적인 수준에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

  미래연구와 시나리오 작성의 경우, 종국적으로 서사의 게임(game of rhetorics)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미래의 이해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사회를 바라볼 경우, 특정한 분야 나름의 논리(또는 특정한 학문)가 지니는 논리적 독자성(logical autonomy)이 사라지고, 분야간에 서로 작용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총체적인 시각 (“경제·사회·문화적 시스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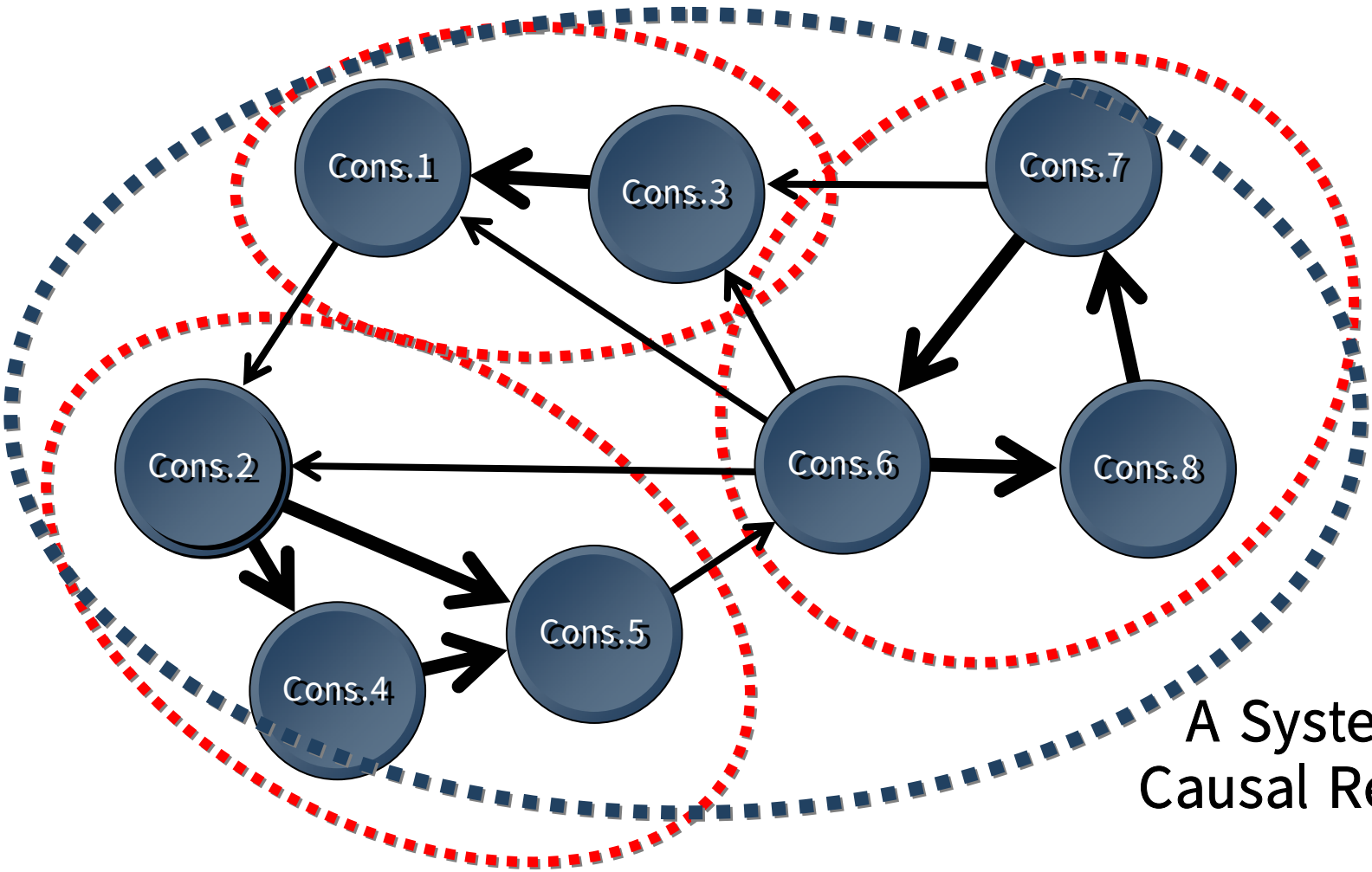
  예컨대, 중단기적으로 경제분야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변화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설명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의하여 생산성이 결정되고, 문화적 요인들에 의하여 인적자원의 생산성에 핵심인 창의성 등이 결정됨

  경제학에서 상호작용하는 별도의 체계로서 다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이원화된 분할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극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각의 하나임

미래의 이해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Cons. = Construct

개별적인 특정학문분야



A System of Causal Relations

미래의 이해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 **미래연구는 “경제·사회·문화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짐**

  미래연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음

  “경제·사회·문화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분야간 상호작용의 구도 (cross-sectional structure of causal relations),

  (2) 중장기 진화과정 (dynamic evolutionary processes), 그리고

  (3) 시스템 외부의 환경 변화 (ad-hoc impacts)

미래의 이해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모으는 과정에 한 분야의 논리가 지배할 경우, 다른 분야의 지식이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커짐**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연구(또는 학문) 분야가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함

  지금까지 국가사회 전반에 전략적 접근에서 주로 경제학적 사고체계가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옴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회, 문화 등의 타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이 도외시 되어옴

  수 차례 사회·문화적 영역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해당분야만의 함의 도출에 머물고 있음

미래의 이해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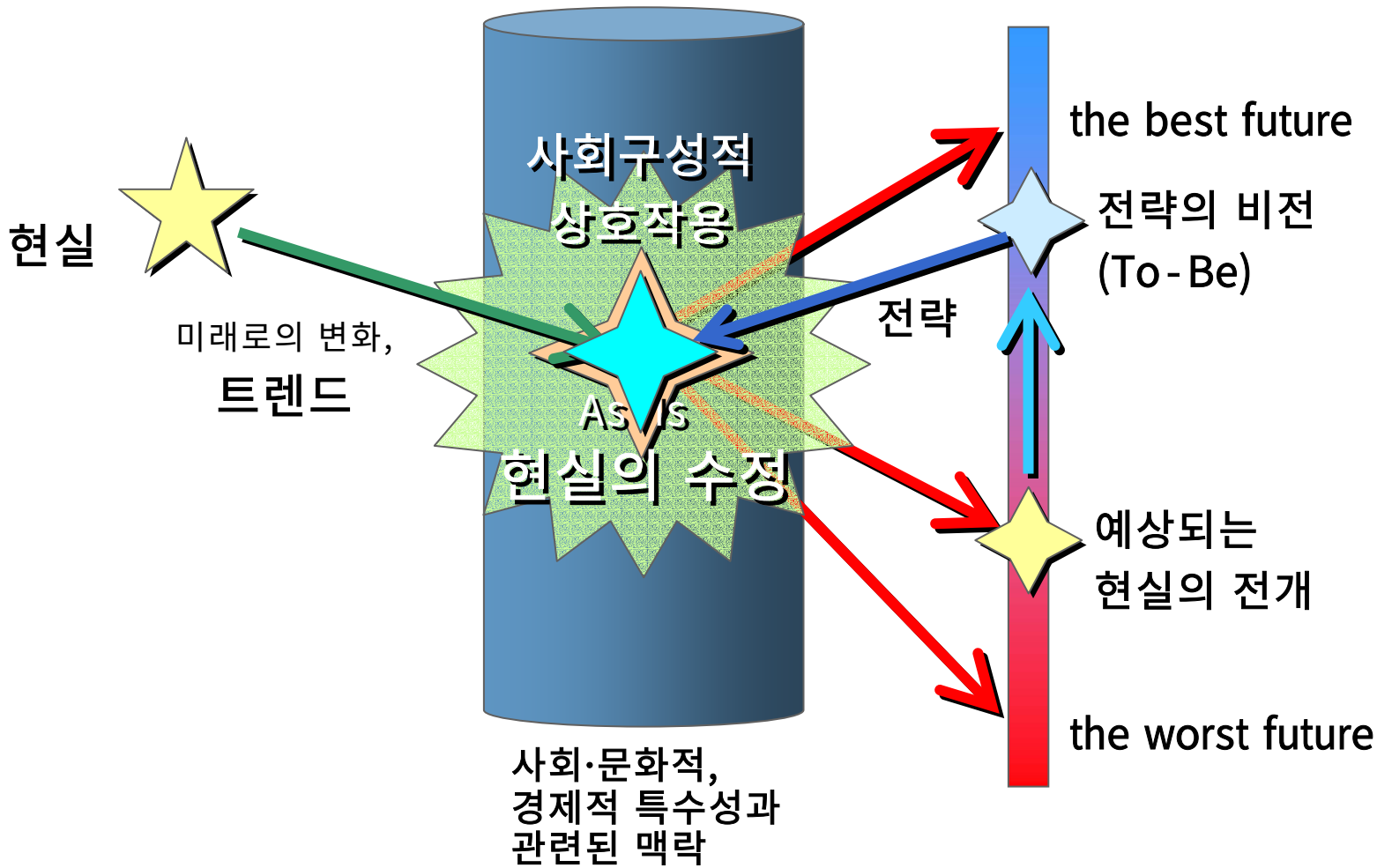
- 미래연구를 위해서 현재의 시스템(system of causal relations)을 파악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미래연구는 미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현재를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도래를 그려보는 것임

- 미래연구는 다양한 분야(domain)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분석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트렌드와 전략

Forewarding과 Backwarding



“ 미래 ”

분야별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의 시사점

트렌드 : 0차적 (한국적 맥락)

: 한국의 특수성에서 추출되는 내용들

- **고령화 (⊕ 출산율의 저하)** (인구구조의 중장기적인 흐름)
- **경제성장에 의한 전환기적 요구**
  (구조적 성숙과 Sustainable Growth에 대한 요구 증대)
- **압축성장의 구조적 한계**
- **다양한 Modernity의 혼재와 융합**
- **자원 부존의 상황**
- **통일 등 대북관계 및 그 진전**
- **문화·역사적 상황** (local & national time)
- **지정학적 상황** (지리적 관점의 국제적 상황)

트렌드 : 0차적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 자본의 속성 (경제적 부의 지배적 속성)
- 정서적 욕구를 지닌 몸 ("몸의 철학" / 욕구)
- 지리적 현실 (관계의 설정, 제한 / 자원의 제한)
- 사람의 인지능력 ("24시간", "일생주기" 등)

기존 질서나 조직원리가 해체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변화하지 않는 내용들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게 됨

트렌드 : 1차적 (시스템 외적 변화)

- IT의 빠른 혁신 (value-neutral as a Megatrends)
- 경제성장 (과도기적 상황의 전개)
- 자원고갈 (탄소자원 포함)
- 고령화의 진전
- 기후 변화
- 세계화 : 국가간의 교류 확산 (Traffic의 동학)
- 국제환경의 변화 : 개발의 확산 (중심부와 주변부의 동학)
- IT 이외의 기술변화 (BT, NT 등)

분야별 트렌드 : 사회적 측면

- 불평등의 재생산 및 사회·문화적 양극화의 심화
- 사회적 갈등구도의 다원화
- 사회적 연결망(사회자본)의 모양 및 동학의 변화
- 사회조직과 구성(Community)의 Causality Reversal과 다원화
  (공동체의 사이버공간으로 이동)
-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확장 및 내재화
- 사회 규범의 원리 변화 및 재규정 (사회규범의 해체를 동반)
- 성(Gender) 역할의 변화와 탈가족화의 진전
- 노동중심적 사회에서의 탈피와 일상생활의 중요성 확대
- 고독한 개인주의의 확산

분야별 트렌드 : 사회적 측면 1

❖ 불평등의 재생산 및 사회·문화적 양극화의 심화

기존에 불평등 또는 계급의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나 기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든지 무의미해 짐

사회자본, 문화자본 등이 시장이나 기술, 나아가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소득의 양극화나 계층의 양극화는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화가 지속되는, 즉 양극화의 고착상태로 이어지게 됨 (사회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들이 시장 또는 자본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양극화의 다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됨

결과적으로 소득이나 경제적 측면의 양극화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양극화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남

양극화의 장기적 고착으로 인하여 계급(또는 계층) 간 상하 이동성이 차단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동기유발이 차단되고 사회적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됨

분야별 트렌드 : 문화적 측면 1

- **디지털 문화의 확장** (& 문화수용의 IT의존성 강화, 전달(IT 미디어)비용의 하락과 Source의 가치 상승, 문화의 전달·생성의 자본집약화)
- **모바일 문화의 일상화** (일상의 개인화, 유목적 일상의 확대)
- **사회적 지식의 의미·의의 변화** (상대성, 다수결 원리의 확산, 권위의 변화)
- **창의성(Creativity)의 사회적·문화적 중요성 확대**
- **세대간 문화적 차별의 확대** (세대적 시간 순서의 와해) **및 상호소통의 축소**
- and . . . . . .

분야별 트렌드 : 문화적 측면 2

- **하류문화의 부상과 양성화** (문화적 가치의 수평화, 소비자 Power의 증대)
- **대서사적 문화의 소멸과 문화적 다원성의 폭발** (편집문화의 확산, '5% 추가'의 중요성)
- **감성시대의 도래** (감성 중시의 Post-Modernity)
- **문화의 상품화 진전** (문화에 대한 자본적 지배의 확산)

분야별 트렌드 : 문화적 측면 1

- 디지털 문화의 확장

  ('디지털 문화') 문화의 존재양식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digital) 형태로 전환됨

  IT의 관점에서 사실상 문화(예술)의 존재양식이 구분되지 않고 단지 digital signals의 양에 의해서 달라지며, computer interface(또는 displayer)에 나타나는 양식이 다를 뿐임

  ('문화수용의 IT의존성 강화') 문화(예술)를 생성하고 전달하며 수용하는 과정에 IT를 점점 자주, 많이 이용하게 됨

  ('문화적 Prosumer의 탄생') IT의 조작을 통한 문화(예술)의 조작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인이 문화 또는 예술의 생산과 소비에 손쉽게 참여하고, 소비와 생산이 결합됨

  ('문화적 융합')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태의 문화가 접합하면서 문화의 존재양식이나 장르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장르가 급속하게 다양해짐

분야별 트렌드 : 문화적 측면 2

- 디지털 문화의 확장

  ('문화적 다원화') 장르의 다양성과 다원화는 문화적 가치의 다양성으로 이어짐

  문화의 전달·수용의 비용 또는 전달(IT 미디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문화(contents)의 Source가 지니는 가치는 점점 상승하게 됨

  문화의 존재양식이 디지털화 되고, 그 전달·수용 과정이 IT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IT의 속성, 즉 "시·공 축약 (time & space compression)"이 이루어짐 (글로벌화, 다원화, 실시간의 한계 극복 등)

  문화의 생성·전달에 기술적이고 자본집약적인 IT가 사용되면서 문화의 생성·전달 과정, 즉 문화의 Value Chain에 자본(capital)이 깊이 간여하게 되고 문화의 생성·전달·소비 과정의 자본집약화)

분야별 트렌드 : 정치·제도의 측면 1

- 공론영역(Public Sphere)의 동학 변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 다양한 현대성의 동시적 공존 (제도화의 정도 차이, 변화의 속도변화에 따른 불평등 발생)
- 정치의 개방성 확대 (개인지향적 Governance 확대)
- 세대별 격차에 의한 정치지평의 변화
- Channel Conflicts (Loopholes)에 의한 정치규범의 혼란
- 이해(Interest)의 다양성 표출과 정치지평의 변화
- 계층과 불평등 구도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변화 (민간/공공의 역할분담 변화와 '국가'의 개념변화)
- and . . . . . .

분야별 트렌드 : 정치·제도의 측면 2

- 네트워크화된 시민사회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확산
- IT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New Government
- “신중세”의 도래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1

- Constant RS에서 Increasing RS로 (산업동학의 변화, 시장의 변화)
- Community적 거래방식·생산양식의 확산
- 경제의 생산양식 및 제품(가치)의 존재양식의 소프트화 (지적재산의 중요성 확대)
- 제품의 Platform화 확산과 Architecture의 중요성 증대 (서비스의 외재화 강화)
- 자본의 존재양식과 재생산구조의 변화 (Invisible화)
- 인적자원과 지식의 분리 (지식의 기반화, 자본지배력의 강화, 창의성의 중시)
- and . . . . . .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2

- 정보적 지식의 중요성 축소(시스템화)와 지혜·창조적 지식의 중요성 증대
- 감성시대의 도래 (Human Touch의 시장가치 증대)
- 선진 경제패권의 존재양식 변화 (Local화의 확대)
- Global Value Chain의 양상 (또는 Global 노동분화)의 변혁
-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 소멸
- 노동시장 또는 고용관계에서 조직의 의의 축소와 전문가체계의 중요성 증대 (Job Nomadism의 확산)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1

- 경제의 생산양식 및 제품(가치)의 존재양식의 소프트화 (지적재산의 중요성 확대)

  생산(제조)의 공정의 중요성보다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 설계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높아짐 (부가가치의 비중 측면)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가 제조공정보다는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에 있음

  이와 같은 변화는 Mass Customization, 고부가가치 상품, 많은 부품의 구성품 등에서 두드러짐

  제품이 수많은 부품의 구성품인 경우,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아키텍처"의 역할이 강조됨

  상품(goods)에 서비스가 결합되거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통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거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도출하고 있음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2

- 인적자원과 지식의 분리 (지식의 기반화, 자본지배력의 강화, 창의성의 중시)

  인력, 즉 인적자원에 내재되어 있던 지식 중, Codified 될 수 있는 지식이 IT시스템에 관리, 축적, 유통 가능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에서 요구되는 생산력의 내용이 변화함

  예) 의료기기, 변호사업, GPS 등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창의성이거나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한 고급 능력이 요구됨

- IT의 빠른 발전과 이용 확산

  이제 IT는 모든 부문과 모든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기존의 생산방식에 IT를 얼마나 잘 녹여 넣는가의 문제가 경쟁력이자 핵심역량이 되고 있음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3

❖ BRIC's, Chindia와 개발의 확산

지금까지의 글로벌 경제발전이 인구 10억 미만을 지탱하기 위하여 자원 고갈과 환경파괴, 국제정치학적 지평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인도와 중국의 거대한 인구, 수십억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소비와 생산의 근본을 변화시킬 움직임이 시작됨

자원의 수요와 소비시장을 상전벽해는 너무나 쉽게 예상됨

"중국이 손을 대는 시장에서 그 어느 나라의 생산력도 지탱할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됨

중국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인도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성장은 사실상 모든 측면의 위협요인이 됨을 의미함

이들이 기본적으로 기초학문(과학, 인문학 등)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임

이들이 기술선진국보다는 생산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 근처에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함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4

- 자본의 존재양식과 재생산 구조와 원리의 변화 (Invisible 화, 자본의 글로벌화, 자본과 지식의 결합)

  자본 또는 시장의 원리는 “편리성(convenience)”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통하여 개인 단위의 수요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고 있음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의 양면적인 욕구를 교묘하게 결합하여 자본적 논리를 변화시킴 (Localization을 통하여 수요자에 대한 극도의 차별화가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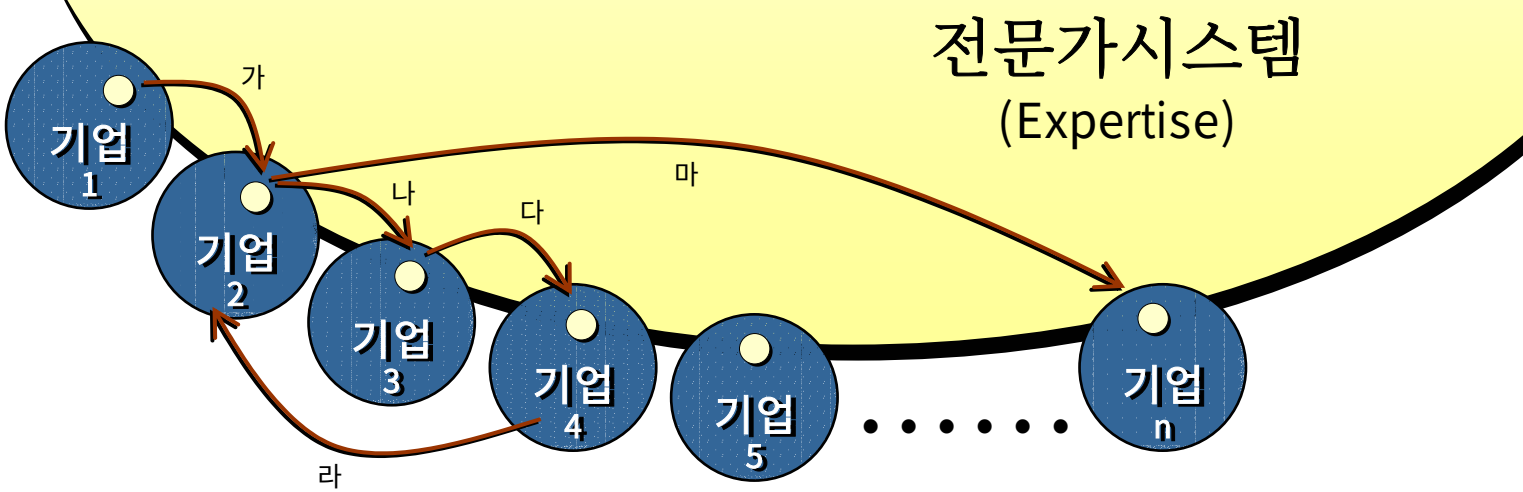
  인적자원으로부터 분리된 지식을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기존 화이트컬러의 역할을 변화시킴

  인적자원에서 구입하는 생산력을 변화하여 자본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이동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5

- 노동시장 또는 고용관계에서 조직의 의의 축소와 전문가체계의 중요성 증대 (Job Nomadism의 확산)



평생고용의 의미가 퇴색하고 전문가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환경이 중요해지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체계에의 편입이 "평생직장"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평생교육(평생교육기관)의 의미가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함 (고용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여성인력의 출산·양육의 의무가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을 요구하게 됨)

강홍렬

분야별 트렌드 : 경제·경영 측면 6

-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 소멸**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 역할과 국제분업의 양상이 변화하고, 생산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과 자본이 만나는 방식이 변화함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 또는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 요구됨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적 분리가 불가능해지고, 자본과 노동이 Community적인 관계로 만나게 됨

- **감성시대의 도래** (Human Touch의 시장가치 증대)

  기술적인 측면의 확산에 따른 반동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몸을 중심으로 가치를 찾는 경향이 강해짐 (웰빙, 환경, 유기농 등에 대한 욕구, 스스로 만드는, 가꾸는 노력의 등장 등)

  모든 변화의 근본에 Paradox를 유발하게 됨

“ 미래 ”

분야별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의 시사점

트렌드 : 2차적 변화

- 에너지·수자원의 개편 요구
- 개인화의 진전
- 유목적 생활양식 확산 (‘홀로’ 벌판에 선 새로이 소외된 인간)
- 경제 개방성의 확대와 국제분업 재편 (새로운 개도국의 부상)
- 다원적 가치의 폭발
- 다양성의 확산 = 이질성·복잡성의 확대
-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확산과 Redundancy의 요구
- 교환 및 생산의 속성 변화 (Community적 거래와 생산의 확산)
- and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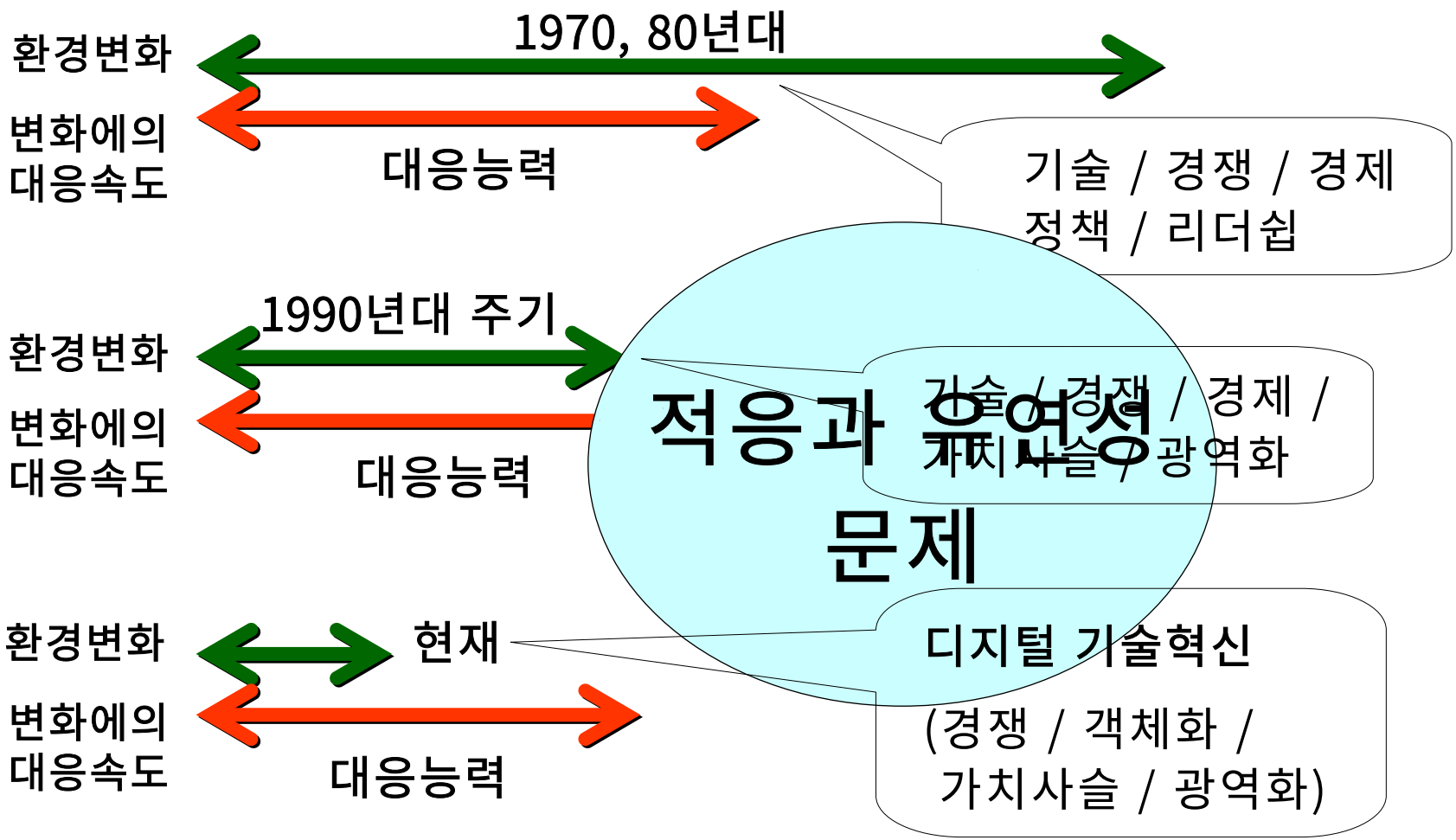
트렌드 : 2차적 변화

- **감성 중시의 요구 증대** (human touch의 가치 증대)
- **Hyper-Reality의 확산** (online과 offline의 결합)
- **소프트 (탈맥락화) 영역의 중요성·비중 증대** (상징과 은유의 중요성 확대)
- **새로운 불평등 구조 및 속성의 등장** (다원화 속의 불평등)
- **융합 : 경계와 구분의 소멸과 재조합** (단일성과 복잡성의 결합)
- **인력과 지식의 분리** (지식의 자본지배력 확대)
- **자본지배의 확대** (합리화를 명분으로 해체된 공백의 지배원리로 등장)

IT에 의한 사회·문화의 변화

- IT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영역의 많은 변화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Risk Governance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문제 포함)
  - Change Governance (유연성과 신축성의 문제)
  - Conflict Governance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복 문제)
  - Complexity Governance (상호소통과 공유의 문제)

Change Governance: 급변하는 환경 vs. 적응



감사합니다.. ^^*

hongyol@kisdi.re.kr
강홍렬